

# 여고생의 문제행동양상과 문제행동 영향요인

박연환<sup>1</sup> · 현혜진<sup>2</sup> · 유수정<sup>3</sup> · 변도화<sup>4</sup>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간호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sup>1</sup>,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sup>2</sup>,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sup>3</sup>, 삼척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sup>4</sup>

## Factors related to Problem Behaviors in High School Girls

Park, Yeon-Hwan<sup>1</sup> · Hyun, Hye-Jin<sup>2</sup> · Yu, Su Jeong<sup>3</sup> · Byen, Do-Hwa<sup>4</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up>3</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sup>4</sup>Lecturer, Samcheok Nurseaid Education Cent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blem behavior, school stressor and family strength in high-school girl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200 high school girls in 2008. Data were analyzed with SPSS/WIN 18.0. **Result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roblem behavior and school stressor.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roblem behavior and family strength. The predictors of problem behavior were school stressor, family strength, and monthly family income and these factors explained 43.0% of problem behavior.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cessity of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enhancing high-school girls' skill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to decrease school stressor and increase family strength.

**Key Words:** Students, Behavior, Schools, Psychological stress, Family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변화단계로서 신체, 정서, 심리적인 변화가 극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정신건강상 취약한 시기이다(Torshheim & Wold, 2001). 또한 자아의식이 높아지는 반면에 문제해결 능력이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숙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나 심리적인 문제들이 부적절하게 표출되어 다양한 문제행동을 일으

킬 수 있는 시기이다(Kim, 2002). 즉, 새로운 역할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역할 부과의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계에 노출되어 문제행동의 발생에 취약하며,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Shapiro, Siegel, Scovill, & Hays, 1998).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우울증, 약물중독, 비행, 집단따돌림, 학교부적응, 인터넷게임 중독, 자살 문제 등 문제행동이 주요한 국가적 정신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Kim, Lee, Kweon, Oh, & Kim, 2009).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으로서 신체증상, 우울, 불안, 비

**주요어:** 여고생, 문제행동, 학교스트레스원, 가족강인성

**Address reprint requests to:** Yu, Su Jeong, Department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660 Usan-dong, Wonju-si, Gangwon-do 220-702, Korea.  
Tel: 82-33-738-7622, Fax: 82-33-838-7652, E-mail: ryusj@sangji.ac.kr

- 본 연구는 강원대학교 건강돌봄연구소의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됨.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Health Care Research Center i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1년 8월 17일 / 수정일 2011년 9월 17일 / 게재확정일 2011년 9월 19일

행, 공격성 등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모두 포함한다(Kim, 2002).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5~6% 내외의 청소년이 임상적 수준의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에는 이런 문제행동이 건강한 청소년에게서도 나타나는 추세로 보고되었다(Lee, 2004).

청소년들은 신체, 정신 및 사회적인 특성의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요구로 많은 내적 및 외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은 미숙하여 문제행동의 발생에 취약하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교사와 친구 사이에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고 자신의 행동이 평가되어지는 사회적 환경이다. 이와 같이 학교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은 청소년기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2002). 또한 청소년기 학교스트레스원은 우울, 적응 등의 심리적 건강 문제(Lee & Chung, 1999)나 문제행동(Kim, 2002; Lee & Choi, 2001; Torsheim, Aae, & Wold, 2003)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어느 연령집단보다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한 대처전략의 학습 요구도가 높은 집단인데, 특히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스트레스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Bonica & Danie, 2003; Hyun, An, Nam, & Park, 2005; Kim, 2002) 여고생의 학교생활 관련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청소년들이 똑같은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 사건이 청소년의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를 유발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처에 따라 스트레스 증상은 차이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문제행동 발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서 학교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은 문제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가족은 청소년기의 발달과 관련된 상황적 맥락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생활 속에서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행동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며, 개인의 행동 양식의 형성 과정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Baer, 2002; Kwak, 2002; Preechawong et al., 2007). 자녀와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안정적인 경우 청소년기가 되어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빈도가 낮아진다고 보고되었다(Hyun, Kim, & Kim, 2004). 즉, 부모나 형제의 정서적 지지가 낮을수록 청소년이 흡연이나 약물남용을 하는 위험이 높아지고, 가족기능이 역기능적일수록 가

족 간 상호작용이 빈약하고 비타협적이며 정서적 지지가 결여되어 청소년이 부적응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Hwang, Lee, Na, Koh, & Park, 2004; Kim, 2002; Nam, Chung Cho, Hyun, & Noh 2006). 가족 간의 관계가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 청소년은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또래집단의 비행문화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므로(Preechawong et al., 2007), 청소년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 근원적인 관계로서 부모 및 가족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은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이외의 문제행동 영향요인들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결혼부적응,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한부모 가족, 가족관계의 갈등, 잦은 주거의 변화, 양육자의 변화,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문제 등 가족 환경의 문제(Ko, 2003; Lee, 2004) 등이 있으며,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많고(Kim, 2002),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유형의 차이(Ko, 2003)가 보고되었다. 즉, 남학생은 주로 과잉행동, 반사회적 행동 등 외현적인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은 부끄러움, 불안, 두려움 등의 내면적인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났다(Ko, 2003). 여고생들은 상급학교 입학, 역할 전환, 사춘기 등을 경험하면서 남학생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문제행동 발생에 취약하며, 특히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충동을 억제하도록 학습되는 경향이 있어 문제행동 양상이 남고생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Hyun et al., 2004; Kim et al., 2009). 또한 여고생의 흡연율은 6.8%, 음주율은 32.3%이며, 가출 청소년 중 여자의 비율이 61.0%이고, 전반적 생활에 대해 여학생의 60.4%, 남학생이 52.3%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Statistics Korea, 2008) 조사되는 등 문제행동을 의미하는 지표에서 여고생들의 결과가 남고생과 비교할 때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경험에 대해 연구(Kim, Kim, & Lee, 1997), 경기도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발달 상태와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Hyun, Nam, & Kong, 2001),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아동학대와 관계에 대해 조사한 연구(Ahn & Yi, 2002) 등으로 문제행동 발생 위험이 높은 여고생 대상의 연구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스트레스원, 스트레스 대처양식, 가족건강성 등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변수들과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지도  
를 통한 예방이 보다 효율적인 접근방법임을 고려할 때 학  
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고생의  
문제행동양상과 문제행동과 학교스트레스원, 스트레스 대  
처양식, 가족강인성 등 영향요인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고생의 문제행동양상과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문제행동 경감을 위한 학교보건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여고생의 문제행동, 학교스트레스원, 스트레스 대처방  
식, 가족강인성 정도를 파악한다.
- 여고생의 문제행동과 학교스트레스원, 스트레스 대처  
방식, 가족강인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여고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고생의 문제행동양상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  
이다.

### 2. 연구대상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C시의 전체 평준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명단에서 난수표를 이용한 무작위 추출하여  
1개의 고등학교를 선정한 후 전화로 학교장에게 자료수집  
동의여부를 확인하였다. 자료수집에 동의한 1개 여자고등  
학교에서 1학년 3개 반, 2학년 3개 반 학생을 편의표출하였  
다.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급을 방문하여 연구에 대해 설명  
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동의한 여학생 210명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10명을 제외한 200명의 자  
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G\*power 3 analysis 프로그  
램에 의하면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3, 검정력 .9를 유지하기 위한 표본 수는 183명이므로  
대상자 수는 충족되었다.

### 3. 연구도구

#### 1) 문제행동

문제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이 보이는 사회적 기대  
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적인 행동(Yu,  
2009)으로 표준화된 한국판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의 수정된 자가보고형  
(Korean Youth Self-Report, K-YS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K-YSR은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나  
누어져 있으며 위축행동,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  
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자해/정체  
감의 9개 하위영역, 총 1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K-YSR의 전체 119문항 중  
Kim (2002)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해당하는 5개의 하  
위영역을 선택하여 재구성한 도구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  
을 뿐 아니라 본 연구목적과 맞다고 판단되어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위축, 불안/우울, 공격행동, 비행, 신체 증상의 5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56문항의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문제 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Kim (2002) 연구에서  
의 Cronbach's  $\alpha =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2) 학교스트레스원

학교스트레스원은 학교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일으키  
는 신체적 혹은 심리적 욕구(Hyun et al., 2005)로 본 연구에  
서는 서울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1개교씩을 무작위로 선  
정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국내외 청소년의 학교스  
트레스원 도구를 토대로 Kim (2002)이 수정·보완하여 개  
발한 22문항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친구요인,  
교사 및 학교생활 요인의 3가지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Kim (2002)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4$ 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 3)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개인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  
화하여 자신의 삶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행하게 되는 노  
력(Seiffge-Krenke, Aunola, & Nurmi, 2009)으로 본 연구  
에서는 Kim의 연구(Kim, 2002에서 인용됨)에서 번역한 대  
처방식 척도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역별로 문항을 선

별하여 재구성한 Kim (2002)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지향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의 4개 하부요인의 27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Kim, 2002)에서의 Cronbach's  $\alpha = .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4) 가족강인성

가족강인성은 가족단위의 협력과 적극적 대처 등으로 가족의 적응을 순조롭고 원활하게 하는 강점요인(Yun & Kim, 2002)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Olson, Larsen과 McCubbin의 연구(Yun & Kim, 2002에서 인용됨)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Yun과 Kim (2002)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한 Family Strength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2문항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기능이 잘 수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Yun과 Kim (2002)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4. 자료수집

해당 고등학교의 학교장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정규수업 종료 후 각 학급을 방문하여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연구참여를 자발적으로 희망한 학생들만 남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자가보고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6월부터 7월까지이었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일인당 약 20분 정도이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여고생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여고생의 문제행동양상, 학교스트레스원, 스트레스 대처방식, 가족강인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여고생의 문제행동양상, 학교스트레스원, 스트레스 대처방식, 가족강인성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여고생의 일반적 특성, 학교스트레스원, 스트레스 대처방식, 가족강인성과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수행하였고, 회귀분석 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가족 평균 월수입 등의 불연속 변수들은 Dummy 변수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여고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52.5%가 2학년생이었고,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는 대졸 이상이 56.5%로 많았으며, 어머니는 고졸이 60.5%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47.5%로 많았고 가족의 평균 월수입은 300만원 이상이 45%로 많았다. 월 용돈은 3~5만원 사이가 28.5%로 가장 많았고 성적은 고루 분포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1st	95 (47.5)
	2nd	105 (52.5)
Academic background of father	≤ Middle school	7 (3.5)
	High school	80 (40.0)
	≥ College	113 (56.5)
Academic background of mother	≤ Middle school	14 (7.0)
	High school	121 (60.5)
	≥ College	65 (32.5)
Religion	Protestant	51 (25.5)
	Catholic	22 (11.0)
	Buddhist	32 (16.0)
	None	95(47.5)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 100	5 (2.5)
	100~ < 200	33 (16.5)
	200~ < 300	72 (36.0)
	≥ 300	90 (45.0)
Ranking in the class	1st~5th	30 (15.0)
	6th~10th	29 (14.5)
	11th~15th	35 (17.5)
	16th~20th	34 (17.0)
	21th~25th	30 (15.0)
	26th~30th	19 (9.5)
	≥ 31th	23 (11.5)

2. 여고생의 문제행동양상, 학교스트레스원, 스트레스 대처방식, 가족강인성

여고생의 문제행동양상은 1~3의 점수 범위에서 평균 1.6

점으로 중간 정도이었으며 항목별로는 내재화 문제행동이 1.7점으로 외현화 문제행동 1.4점 보다 다소 높았다. 문제행동의 세부항목 중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의 신체적 증상이 2.0점으로 가장 높았다. 학교스트레스원은 1~4의 점수 범위에서 평균 2.3점이었고 항목별로는 친구요인이 3.6점으로 가장 높았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1~4의 점수범위에서 평균 2.7점이었고 항목별로는 소망적 사고가 2.9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완화적 대처가 2.4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족강인성은 1~4의 점수범위에서 평균 2.4점이었다 (Table 2).

### 3. 학교스트레스원, 스트레스 대처방식, 가족강인성과 문제행동양상 간의 관계

여고생의 문제행동양상은 가족강인성과 부적 상관관계

를 보였고( $r=-.387, p<.001$ ) 학교스트레스원과는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602, p<.001$ ).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 4. 여고생의 문제행동 영향요인

여고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스트레스원, 스트레스 대처방식, 가족강인성과 학년, 성적, 용돈을 독립변수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여고생의 문제행동 예측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8.781, p<.001$ ). 분석결과 여고생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영향요인은 학교스트레스원( $p<.001$ ), 가족강인성( $p<.001$ ), 가족 월수입( $p=.040$ )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년, 성적은 제외되었는데 이 변수들은 여고생 문제행동의 43.0% 설명력을 보였다(Table 4).

**Table 2.** Mean Score of the Specific Type of Problem Behaviors and School Stressor,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Family Strength (N=200)

Variables	Categories	M±SD	Range
Type of problem behaviors	Internalized problem	1.72±0.30	1~2.47
	Physical symptoms	1.96±0.42	1~3
	Withdrawal	1.63±0.35	1~2.29
	Depression/anxiety	1.55±0.32	1~2.69
	Externalized problem	1.40±0.23	1~2.17
	Aggressive behavior	2.37±0.52	1~2.37
	Delinquency	1.21±0.17	1~1.82
	Total	1.56±0.22	1~2.11
Type of school stressor	Scholastic performance	2.79±0.40	1~3.75
	Friendship	3.57±1.83	1~3.57
	Relation among teachers	2.32±0.60	0~3.71
	Total	2.33±0.40	0~3.68
Stress coping strategies	Problem oriented coping strategy	2.67±0.40	1~3.83
	Emotion oriented coping strategy	2.44±0.33	1~3.25
	Wishful thinking coping strategy	2.90±0.38	1~4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y	2.65±0.49	1~3.67
	Total	2.66±0.28	1~3.30
Family strength		2.41±0.73	1~4

**Table 3.** Correlations among Family Strength, School Stressor, Stress Coping, and Problem Behaviors (N=200)

Variables	Family strength	School stressor	Stress coping	Problem solving
	r (p)	r (p)	r	r (p)
Family strength	1	-.267 (<.001)	.029	-.387 (<.001)
School stressor		1	.053	.602 (<.001)
Stress coping			1	.115
Problem behavior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Problem Behaviors of the Subjects

(N=200)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14.377	3.847		3.737	< .001
School stressor	0.742	0.079	.531	9.422	< .001
Family strength	-0.359	0.079	-.256	-4.531	< .001
Family income	1.040	0.502	.113	2.070	.040
Adjusted R <sup>2</sup> =.430, F=48.781, p< .001.					

## 논 의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성인이 되었을 때 반사회적인 행동 및 물질남용 행위로 발전할 수 있으며(Kim et al., 2009), 청소년기의 건강은 물론 성인기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Seiffge-Krenke et al., 2009)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한 관심과 예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대상자인 여고생의 문제행동은 평균이 1.6점이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 평균은 1.7점, 외현화 문제행동 평균은 1.4점으로 내재화 행동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보다는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생이 더 흔하다는 선행연구결과(Hyun et al., 2004; Nam et al., 2006)와 일치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겉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드물고 청소년 스스로는 인식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교사의 경우 겉으로 표출되는 문제행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고생의 내재적인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중재할 수 있는 관심과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 특히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부요인인 불안이나 우울은 분노 등 다른 문제행동과 관련되고 건강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Mahon, Yarcheski, Yarcheski, & Hanks, 2010) 주의 깊은 관찰과 중재가 필요하다.

한편 문제행동의 5가지 하부영역 중에서는 공격행동 평균이 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증상, 위축, 불안/우울, 비행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 고등학생 모두 위축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Kim (2002)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교스트레스원 중 친구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오늘날과 같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외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욕구좌절의 분출이 폭발적으로 표현되어 분노와 같은 공격행동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고(Mahon et al., 2010), 이와 같은 행동의 외현화가 또래관계가 중요한 청소년기에

년기에 또래들에 의해 더욱 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문제행동 영역 중 공격행동과 신체증상이 높은 결과는 분노표현 빈도가 많은 여학생의 경우 정신신체증상 호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Park, Han, Shin, Kang, & Moon, 2004)와 유사하다. 즉,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는 논쟁하고 싸우고 남을 괴롭히는 행위 같은 반응으로 언급되는 외향적 문제행위와 관계될 수 있으며, 불안, 우울, 스트레스, 폭력 등의 예측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Mahon et al., 2010), 보건 교사 중심의 보건교육 강화로 공격, 분노 성향을 정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학교스트레스원 전체 평균은 2.3점이었으며, 친구요인, 학업요인, 교사 및 학교생활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들이 보고한 학교스트레스원의 평균값은 경기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Hyun 등(2005)의 연구에서 2.3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청소년 스트레스의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은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차이가 있는 반면, 학교스트레스원은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들(Hyun et al., 2004; Kim et al., 1997)과 일관된 결과로 우리나라의 학업성취 위주 교육현장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되며, 학교가 여고생들에게 주요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한편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Hyun 등(2005)의 연구에서는 학교스트레스원 중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거나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원 중 친구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청소년에서 또래 관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또래 지지가 내재화, 외현화 증상을 중재하며, 또래집단으로부터 지지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an, 2009; Han, 2007).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으로 동성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관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요구도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Hyun et al., 2005) 보고되었다. 이는 여고생들이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거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스트레스상황을 또래와의 논한다는 것을 암시하며, 친구와의 관계 등 원만한 대인관계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을 반영한다.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여고생은 친구관계가 원만하며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등 개인의 건강한 발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호적 대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상담, 바람직한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위한 심리적 지원과 문제해결 기술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스트레스 인지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여자의 경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되면서 남학생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는 점(Hyun et al., 2005)을 고려했을 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때 성별의 차이를 반영하는 세밀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처방식의 성공여부는 적응과 부적응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적절한 대처방식은 성장경험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하는 반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 신체적 질병이나 심리적 장애 또는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망적 사고 대처(2.9점), 문제지향적 대처(2.7점),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2.7점), 정서완화적 대처(2.4점) 방식 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고등 학생의 대처방식에 대한 Kim (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즉, 본 연구대상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거나 주위의 도움을 찾기보다는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해 나가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Kim (2002)의 연구결과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 추구는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정서완화적 대처방식과 소망적 사고는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문제행동이 감소될 수 있으며, 소망적 사고와 정서완화적 대처방식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문제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고생이 문제지향적 대처 및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청소년기에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으로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가 변화되며, 학교, 교사, 가족, 친구 등 상황적 요소에 의해 스트레스 대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Seiffge-Krenke et al., 2009),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가족과 친구, 청소년의 연결고리를 활용하는 대처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변화는 가족관계와 가족기능에도 변화를 초래하며, 이와 같은 기능변화는 가족 내 청소년의 정신적 및 심리적 요구에 대한 갈등 및 현실에 대한 부적응 문제를 가져와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문제행동은 가족강인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r=-.387$ ), 학교스트레스원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602$ )가 있으며, 학교스트레스원과 가족강인성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r=-.267$ )가 있었다. 가족강인성과 문제행동 발생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가족기능과 문제행동 발생과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결과(Nam et al., 2006)와 가족불화 정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한 Ko (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강인성은 가족 단위의 협력과 적극적 대처 등으로 가족적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Yu, 2009), 가족과의 관계가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 여고생이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또래집단의 비행문화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모 및 가족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여고생 문제행동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한편 선행연구들(Hyun et al., 2004; Kim, 2002; Lee & Choi, 2001)에서도 학교스트레스원은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이는 여고생들이 학교스트레스원을 많이 받을수록 보다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고생의 문제행동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여 학교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여고생의 문제행동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므로 학교와 가정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회귀분석 결과 여고생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스트레스원( $\beta=.531$ )이었고, 다음은 가족강인성( $\beta=-.256$ ), 가족 월수입( $\beta=.113$ )의 순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교와 가족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지각하고 그 중 학업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호소하며

(Hyun et al., 2005; Park & Lee, 2009),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고한 선행연구(Hyun et al., 2004)와 일관성있는 결과이다. 즉, 본 연구결과는 학교스트레스원이 많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부정적이거나 가족분위기가 화목하지 못하는 등 가족강인성이 부정적이며, 가족 수입이 높은 중, 상류층 이상인 집단에서 문제행동에 노출될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의 청소년 자녀에서 이탈행동 발생이 높다는 선행연구(Preechawong et al., 2007; Yu, 2009)도 있고 경제수준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경우(Ban, 2009)도 있어 가족의 수입과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차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을 본 연구에서와 같이 가족의 월수입으로 소득에 따라 세분화하여 조사한 연구가 있는 반면 다른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제수준을 묻는 경우가 많아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Yu (2009)의 연구에서는 경제수준과 가족기능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경제수준을 높다고 지각할수록 가족기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기능과 문제행동 발생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Nam et al., 2006)으로 보고됨으로써 경제수준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기능과 같은 변수에 대한 고려를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고생들의 경우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므로 학교스트레스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는 청소년기 이후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여러 선행연구들(Hyun et al., 2005; Kim, 2002; Ko, 2003; Lee, 2004; Torsheim et al., 2003; Torcheim & Wold, 2001)에서도 문제행동의 발생과 학교스트레스원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으로써 여고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적인 중재 및 예방적인 개입 차원의 학교 중심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여고생을 문제행동 상황으로 유도하는 중요하고도 일차적인 원인은 흔히 가족에 있고, 이러한 여고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도 가족임이 지적되고 있다(Moon, 2008; Park et al., 2004; Park & Lee, 2009; Preechawong et al., 2007). 따라서 부적응으로 문제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여고생 자녀가 있는 가족은 다른 발달단계의 가족보다 가족원 간의 밀접한 유대감을 지속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대화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며, 부모와의 갈등과 부모불화가 주원인이 되어서 가출과 비행, 스트레스, 우울을 경험

하는 것으로(Hwang et al., 2004) 보고되었다. 또한 대개의 경우,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가족 간에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이 내재함이 보고되었으며(Moon, 2008), 부모 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정서교육에 지장을 주고 갈등을 유발하며 이로 인한 욕구불만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다른 여러 제반 환경과 결합하여 문제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적용이 필요하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고생들의 문제행동양상을 확인하고 학교스트레스원, 스트레스 대처양식, 가족강인성 등과 문제행동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여고생의 문제행동양상은 중간 정도이었으며, 항목별로는 내재화 문제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 보다 다소 높았고, 문제행동의 세부항목 중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의 신체적 증상이 가장 높았다. 학교스트레스원은 친구요인이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소망적 사고가 가장 높았고 정서완화적 대처가 가장 낮았으며, 가족강인성은 중간 점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의 문제행동양상은 가족강인성과 학교스트레스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여고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여고생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은 학교스트레스원, 가족강인성, 가족 월수입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여고생 문제행동의 43.0% 설명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여고생들은 학교스트레스원이 많을수록 가족강인성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났으며, 학교스트레스원으로는 친구요인이 가장 높았다. 내재화 문제행동에서는 신체적 증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따라서 여고생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스트레스원 특히 친구요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차적으로는 학교스트레스 특히 또래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가족강인성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이차적으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보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개 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반복적인 연구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재 규명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Ahn, H. Y., & Yi, G. (2002). A Correlational study of adolescents behavior and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with child abuse experience of the adolescent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3(4), 786-794.
- Baer, J. (2002). Is family cohesion a risk or protective factor during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3), 668-675.
- Ban, E. S. (2009). *A study on the factors of influencing on adolescent's problematic behaviors -focused on the viewpoint of ecosyst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 Bonica, C., & Daniel, J. H. (2003). Helping adolescents cope with stress during stressful times. *Current Opinion in Pediatrics*, 15, 385-390.
- Han, H. A. (2007). *The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ego-resilience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Hyun, M. S., An, Y. M., Nam, K. A., & Park, S. W. (2005). The school related stress and mental health education need amo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2), 119-126.
- Hyun, M. S., Nam, K. A., & Kong, S. S. (2001).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xual development and problem behavior and depression -focused on middle school students in Kyungki-Do-.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4), 533-547.
- Hyun, M. S., Kim, K. H., & Kim, S. A. (2004). Influencing factors on problem behaviors among adolescents: Focused on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34(2), 252-260.
- Hwang, J. S., Lee, E. H., Na, Y. J., Koh, S. J., & Park, S. H. (2004). Cyber behavior of adolescents according to family and school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11), 223-235.
- Kim, J. K., Kim, E. S., & Lee, J. A. (1997). A study about the experienced problems and the demands of counseling of the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physical, psychological, sexual and the socio-cultural problem categorie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1(2), 152-170.
- Kim, S. J. (2002).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he stressors from school on problem behavior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stress coping strateg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S. J., Lee, C. S., Kweon, Y. R., Oh, M. R., & Kim, B. Y. (2009). Test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adolescent mental problem questionnaire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5), 700-708.
- Ko, J. J. (2003).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 and family relational variable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 Economics Association*, 41(7), 121-143.
- Kwak, Y. H. (2002).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adolescent's behavioral problem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Lee, C. S., & Choi, B. S. (2001). A study on mental health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a c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4), 615-628.
- Lee, K. A., & Chung, H. H. (1999). Effects of stress, self-esteem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on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1(2), 213-226.
- Lee, S. C. (2004). The understanding frameworks for adolescent's specific behavior.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0, 1-10.
- Mahon, N. E., Yarcheski, A., Yarcheski, T. J., & Hanks, M. M. (2010). A meta-analytic study of predictors of anger in adolescents. *Nursing Research*, 59(3), 178-184.
- Moon, Y. S. (2008).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self-concept and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4(4), 405-414.
- Nam, K. A., Cho Chung, H. I., Hyun, M. S., & Noh, S. H. (2006). A correlation study among family function, occurrence and perceived seriousness of problem behaviors for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2), 161-169.
- Park, Y. J., Han, K. S., Shin, H. J., Kang, H. C., & Moon, S-H. (2004). Anger, problem behaviors, and health status in adolesce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7), 1234-1242.
- Park, Y. J., & Lee, J. H. (2009).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the binge eating disorder among Korean girls' high school students-with the mediation of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2), 171-187.
- Preechawong, S., Zauszniewski, J. A., Heinzer, M. M., Musil, C.

- M., Kerckmar, C., & Aswinanong, R. (2007). Relationships of family functioning, self-esteem, and resourceful coping of Thai adolescents with asthma.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8*(1), 21-36.
- Seiffge-Krenke, I., Aunola, K., & Nurmi, J. E. (2009). Changes in stress perception and coping during adolescence: The role of situational and personal factors. *Child Development, 80*(1), 259-79.
- Shapiro, R., Siegel, A. W., Scovill, L., & Hays, J. (1998). Risk-taking patterns of female adolescents: What they do and why. *Journal of Adolescence, 21*, 143-159.
- Statistics Korea. (2008). *Youth Statistics*. Retrieved April 7, 2011, from: [http://kosis.kr/themes/themes\\_03List.jsp](http://kosis.kr/themes/themes_03List.jsp)
- Torsheim, T., Aaroe, L. E., & Wold, B. (2003). School-related stress, social support and distress: Prospective analysis of reciprocal and multilevel relationship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4*, 153-159.
- Torsheim, T., & Wold, B. (2001). School-related stress, support, and subjective health complaints among early adolescents: Multilevel approach. *Journal of Adolescence, 24*, 701-713.
- Yu, H. J. (2009). *The effects of the family function and internet addiction on the problem behaviors of the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Yun, H. Y., & Kim, N. Y. (2002). The stresses depression, and family strength of parents according to the types of disabilities of their childre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6*(2), 59-71.